

허만근 (Kenneth W. Hermann)
미국 Dordt 대학 교수, 고신대 방문교수.

창조와 학문활동에 대한 개혁주의적 관점

A Reformational Perspective on Creation and Academic Study

이 글은 저자가 지난 96년 5월 고신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eation Science 에서 발표한 내용
을 번역한 것이다.

번역: 김성수 교수 (고신대학교)

I. 서론

본인의 고신대학교 방문 일정의 한 부분으로서 이러한 국제학술모임에
서 발표할 수 있도록 초대받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 모임의
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연사들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의 관심영역과 학적 배경은 좀 더 역사적, 신학적, 철학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창조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가 우리의 학문적

탐구 활동에 대해서 갖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창조’라는 용어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세계의 기원이라는 의미와, 둘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속적인 말씀으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지 보존하시는 창조세계의 구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은 후자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소위 ‘계속적 창조’(Creatio continua)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적이며 긴밀한 관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II. 개괄적 고찰(Overview)

사도신경의 첫부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아주 대답하면서도 단순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즉 2000여년의 세월을 통해 전 세계의 신자들을 결속한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 교수들에게 그들의 학문활동을 하나님 경외적인 방향으로 수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에서 본인은 물리학이나 철학, 교육학, 공학 등 그 어떠한 학문에 있어서든지 간에 창조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핵심에 대한 기독교적 확언이 신실한 학문적 탐구활동을 추구함에 있어서 갖는 몇 가지 중요한 함의점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총체적 관점은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매순간 순간마다 주님의 언약적 신실함으로 유지해 가시는 창조의 포괄적 범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15-20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고찰해 봄으로써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영지주의자와의 싸움에서 그리스도와 창조세계간에 존재하는 통합적 관계에 대한 신약성경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이 구절은 비록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직접적인 초

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최근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 귀절에서 몇가지 놀라운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거듭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세계의 통일성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있는 만물의 포괄적 범위,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창조세계의 절대적인 의존성, 창조세계에 있는 죄의 범위와 결과가 갖는 포괄적 범위, 그리고 창조세계의 올바른 역할로부터 소외된 만물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화목사역의 포괄적 범위입니다.

III. 창조와 학문활동

이와 같이 성경적 가르침으로부터 기독교적 학문 탐구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함의점들이 다음과 같이 도출되어집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아주 간단한 아메바로부터 대도시의 복잡한 사회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나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참으로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보좌들이나 권세들,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아주 길게 열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약의 창조주와 동일시한 이후 바울은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광범위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 일장과 이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심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의 의미를 단지 나무, 동물, 꽃, 바위 또는 태양계와 같은 단순히 비인간적인 피조물에만 제한시키는 경향이 있는 때에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는 한 가지 근본적인 구분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주의 창조주와 창조주 이외의 기타 모든 것간에 존재하는 엄연한 구분입니다. 창조주 이외의 모든 것

은 성경적인 용어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피조물'은 동물원 우리에게 있는 동물들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피조물'의 범주 속에는 바위, 강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나무와 인간과 같은 생명 형태, 광합성의 과정, 수문학적(水文學的) 순환과정, 교육이론, 또는 가족과 도시 등과 같은 문화 제도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분자물리학의 가장 추상적인 이론으로부터 바하의 아름다운 칸타타 음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피조물입니다. 이제 피조물에 대한 이와 같이 확대된 이해로부터 도출되는 몇가지 중요한 함의점들을 고찰해 보기로 합시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피조물들이 대학에 있어서 탐구의 초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화학이나 철학 등 모든 학과목들은 주님의 창조세계의 어떤 국면을 탐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생물학과나 지질학과뿐만이 아니라 대학의 모든 학과들은 그들이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모두 '창조과학'(creation research)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수들은 자신들의 구체적인 전공영역이 무엇이든지간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어떤 국면을 탐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 방법은 우리의 탐구 영역들을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역사를 탐구한다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역사적 국면을 탐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불신 친구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생물학적 국면을 탐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탐구영역들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측면 또는 차원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탐구영역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측면 또는 차원을 탐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는 많은 다양한 피조물들로서 가득차 있고,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해 있으며, 우리의 탐구와 이해활동에 있어서 이러한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편24:1이 선언하는 바와 같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

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의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 폭을 넓히고 난 후 우리는 성경이 이와 같이 ‘피조물들’의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하고 있는가를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주님께 의존해 있고 종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 대한 만물의 이와 같은 의존성과 종속성을 만물과 맺은 주님의 언약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창세기 9장에서 모든 피조물들과 맺은 주님의 언약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역서 주님은 이제부터 땅위의 모든 피조물들과 언약을 맺으실 것을 선언하시고, 무지개로서 이 언약에 대한 자신의 신실성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아주 풍부한 개념입니다. 모든 것은 그 뿌리를 우주를 유지, 보존하시는 그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고찰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요점들을 지적해 낼 수는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여러 귀절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언약은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과 매 순간 순간 마다 밀접하게 맺으시는 관계 즉, 주님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간의 긴밀한 관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그 어떠한 것도 그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어떠한 피조물도 자율적인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의 숨결처럼 자신의 피조물들 가까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초월성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주님은 우리들로부터, 그리고 창조세계로부터 ‘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피조물에 대한 주님의 친밀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명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주님의 초월성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불신자들에게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신론이라는 계몽주의의 종교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준 것은 바로 초월성에 대한 왜곡된 관점이었습니다. 이신론자들은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만 중요하였지 일단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이 세상이 스스로 아주 잘 움직여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지속적인 언약적 신실함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이 오로지 실제적인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결론을 단순히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편 139편은 훨씬 더 정확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동물, 꽃, 강 등과 같은 비인간적인 피조물들은 자율적이 아니라는 사실, 즉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를 영위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언약적 신실성이 이들 비인간적인 피조물들에 대해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일은 우리에게 비교적 용이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복잡하고 정밀한 피조물들, 특별히 인간이나 문화적인 피조물들이 주님께 의존해 있고 종속적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학의 여러 이론들이나 기엽, 또는 생태계가 그리스도에게 의존해 있고 종속되어 있으며, 언약적으로 유지 보존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것은 물리학의 이론들이나, 기엽, 또는 생태계가 결코 그들 스스로를 유지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지속적인 존재를 그리스도의 계속적이며 유지적인 능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달곰이 그 스스로 자기 존재의 창조자이거나 유지자가 아닌 것과 꼭 같이 그 어떠한 물리학자도 그가 고안할 수 있는 원자핵 이론의 저자이거나 유지자인 것은 아닙니다. 양자는 모두 그 존재를 주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비록 물리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만들어 내었다'고 우리가 말한다 할지라도 물리학자들이 그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유지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우주에 관한 자신의 이론을 스스로 유지해 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론은 그 이론이 정확하든지 아니면 잘못되어 있던지 간에 그 존재를 주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은 그들의 존재를 주님께 의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한 주님께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신론자들은 피조물들이 아마도 하나님께 의존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피조물

들이 주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의 존재를 향한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명령받고 있다는 아주 강한 의미에서 한결같이 주님의 권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인간 존재에 있어서도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명령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 역시도 주님께 순종하도록 명령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아는 것은 인간이 그들의 순종을 방해하지 않는 한 이들 비인간적 피조물들은 실패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적 학문에 아주 중요하고도 고무적인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학에서부터 생물학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는 '법칙들'을 우리가 탐구함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께서 이들 피조물들에게 명령하시는 방법과 이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이와 같은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바위, 식물 등과 같은 피조물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권위와 피조물들의 순종간에 맺어지는 관계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인간의 탐구는 이와 같은 '법칙들'을 정말로 많이 발견해 내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이 이들 '법칙들'을 정확하게 확인해 내었는지, 아니면 심지어 이와 같은 '법칙들'이 도대체 존재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러한 논의를 타락한 학자들로서 우리의 오류 가능성의 표정으로 받아들이지, 이들 '법칙들'이(이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던지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에서 주님께 순종하도록 명령받고 있다면 이 순종은 결혼과 가족으로부터 기업활동, 학교와 정치질서, 그리고 예술의

이론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문화적 현존의 모든 산물까지도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문화적 피조물은 주님의 권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님께서 정의와 의로움, 그리고 사랑이 우리의 문화적 삶에 편만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깃발히는 곳에는 그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분노가 뜨거운 용광로의 불길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간이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사법적, 교육적, 그리고 예술적 제도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제안해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부르셨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문화적 책임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에게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제도들,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사회 문화적 제도들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기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으로 분류되는 학문에 종사하는 학자들은 문화적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다양한 규범의 본질과 의미를 탐구합니다. 시간관계상 이러한 진술이 지니고 있는 보다 풍요한 의미에 대해서 단순히 광범위한 개요 정도만을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만, 인간은 그들이 학교, 가정, 백화점, 연구소, 마천루, 사회봉사기관, 그리고 여타의 모든 사회적, 문화적 제도들을 건축할 때에 항상 주님께 필연적으로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인간이 자신들의 욕구를 따라서 만든 순수하게 자유로운 창조물이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오히려 주님께 대한 인간의 회피할 수 없는 책임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부터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자신들이 핵물리학을 탐구하거나, 아니면 중세철학, 아동발달, 기업경영, 또는 한국불교의 역사를 탐구하던지 간에 모두 주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문화적 형성을 탐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IV. 창조, 죄 그리고 학문탐구

(Creation, Sin, and Academic Study)

창조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분명히 주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이 창조 세계의 모든 국면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전체 창조 세계에 혼란과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주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신실한 청지기가 되지 못한 인간의 실패는 오염된 강과 계곡으로부터 성에 대한 왜곡된 관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왜곡된 우주론, 부정의한 정치, 경제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죄라는 실재는 창조세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의 표어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지식과 이해를 위한 그들의 노력에 있어서까지도 자신의 모든 삶을 코람테오(Coram Deo)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이 자신들의 지성과 지식을 우주의 창조주에게 복종시키기를 거절할 때 인간은 항상 피조물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를 우상숭배는 항상 우리의 문화속에 엄연히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대학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대학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나 비그리스도인이거나를 막론하고 우리 자신들이 고안해 낸 어떤 이론을 향하거나, 아니면 우주의 모든 실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근본 원리, 또는 몇 가지 상이한 전공영역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이론들을 통합하는 어떤 통일된 장(場) 이론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은 창조 세계의 여타 부분들에 대한 이해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피조물에게로 지향합니다. 이것은 대학에서 볼 수 있는 현대적인 모양의 우상입니다. 학문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대학에서 흔히 우리를 미혹시키는 이론적 우상들의 모양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주님의 창조 세계의 어떠한 국면이 우리들 동료 교수들의 마음에서 우상으로 바뀌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예리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곡된 경배의 형태로서의 우상숭배는 전포괄적입니다. 우상숭배는 항상 그 설명적 주장을 계속적으로 보다 더 넓은 탐구영역으로 확대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 물질주의, 또는 실증주의가 대학에서 것처럼 강력하고 영향력있는 우상이 되어있는 한 이유입니다. 이들 우상들은 대학에서 그들의 경쟁이론들 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더 현대판 바알 신에게 도전하면서 이러한 우상들이 주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어떻게 왜곡시켰는가를 보여주도록 요청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들을 비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으며 결함이 있습니다.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탐구 영역은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인간 반역의 영향으로부터 면제된 중립적 탐구 영역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17세기 과학 혁명에서 태동된 현대인의 꿈 즉, 모든 오류를 제거하고 순수하며 확실한, 그리고 권위적인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식 획득의 방법을 고안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꿈은 하나의 공허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수학이나 재료공학이거나 간에 그 어떤 학과목도 죄의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면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학 전체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이론적 노력은 그 노력들이 죄인들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과 적절히 타협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인간죄의 왜곡시키는 영향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도 결국 불완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는 물론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려는 자신들의 노력이 아직도 왜곡된 의미 파악과 잘못된 해석의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의 신앙은 아직 예리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시각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흐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거나 비그리스도인이거나 간에 하나님의 세계의 많은 상이

한 국면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이 훼손되어 있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견지할 수 밖에 없는 어떤 긴장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아주 현실적인 어떤 애매모호성이 우리들의 이론적 노력 전체를 통해서 섞여 짜여져 있습니다. 5세기경 당시 교회의 위대한 지적 지도자였던 성 어거스틴(St. Augustine)은 인간 역사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애매모호성을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간에 나타나는 대립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로마서 7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예증해 주는 바와 같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경험하는 어떤 대립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이론에 대한 정확성의 보장을 그들의 확고한 신앙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한편 비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세계의 구조에 대한 어떤 통찰들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인정해야만 하는 통찰력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과 염소가 분리되어지는 때 즉, 주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에 근거하여 고안된 이론들과 피조 세계의 우상에 대한 복종에 근거하여 고안된 이론들간에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를 정당하게 갈망하고 있지만 이 때는 아직도 도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최종적인 분리 작업을 하실 때까지 순종의 곡식은 불순종의 잡초와 함께 씨 뿌려질 것입니다. 학문의 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죄의 모호케하는 특성이 학문적인 삶 속에 어떻게 스스로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방법을 배워 알아야 합니다.

V. 학문 탐구에 있어서 창조, 죄, 그리고 구속

(Creation, Sin, and Redemption in Academic Study)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창조 세계의 포괄적인 범위와 이 창조 세계 속에 나타난 인간 반역의 포괄적인 범위에 대해서 고찰하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것들만 유일한 두 가지 실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회

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20에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본래적 목적으로부터 소의된 창조계의 만물을 창조 세계속의 그 올바른 역할로 회복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 창조주이시며 구속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전 창조계를 구속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자신의 가르침의 절정에서 바울은 갈보리 산상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전체 창조계를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구속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셨고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보존해 가시는 창조 세계를 주님은 구속하시려고 하십니다. 구속의 범위는 주님의 창조의 범위처럼 포괄적이며, 인간 타락의 파괴적 결과 만큼이나 포괄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계를 향한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것이 이론이거나, 과정, 사물, 법칙, 또는 순환과정이거나 간에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구속 사역의 대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승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모든 피조물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전 창조계의 변혁에 대한 이와 같은 비전은 선지자들을 고무시킨 비전이며, 이 비전은 또한 우리들 모두를 고무시키는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계속해서 선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래 그렇게 창조되었던 바대로 창조계의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화목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학자들을 향한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화학, 생물학, 사회학, 수학, 역사, 또는 심리학 등 왜곡된 이론을 보게 되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이와 같은 전체성과 건실성의 비전을 실현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이론적 우상들에게 매달려 속박

되어 있는 동료들을 볼 때 마다 우리는 그들 자신의 잘못된 경배행위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통일성과 조화를 회복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 탐구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통일성과 조화를 볼 수 있게끔 하는 회복의 소명을 수행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안에서 만물의 이와 같은 완전한 회복을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가장 요원한 은하계로부터 우리 신체의 작은 세포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장 은밀한 핵분열이론으로부터 가장 단순한 화학적 과정에 이르기까지 창조 세계안의 만물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궁극적 회복에 대한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모든 학문 활동을 인도하고 배양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창조 세계의 포괄적 범위에 대한 이와 같은 회복된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시편 기자와 함께 시편 24:1의 말씀 곧,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고 담대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